

민주 경선 5주 연기... 후보들, 정책 알리기·바닥 다지기 올인

당 안팎 "경선 흥행 추가 이벤트 필요" "코로나 방역 집중" TV 토론회 횟수 추가하고 형태 다각화 방식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면서 후보들도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경선 흥행'을 위해 추가 이벤트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선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선 방식에 대한 추가 고민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는 경선 일정에 대한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

초 이번주 월·목으로 예정된 TV 토론을 무기한 순연했다. 선관위는 해당 일정 재편성을 포함해 TV 토론회 횟수를 추가하고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며 "일단 TV토론을 일주일에 2회씩 배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경선 기간 약 18회 정도의 TV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한준호 선관위원은 "지난 예비경선 때 TV 토론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토론회는 가급적 민생과 방역 등 의제를 하나씩 잡아 대선 후보로서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선경선기획단과 지도부는 이러한 선관위의 계획에 심드렁한 표정을 보이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내용 끝에 정한 경선 일정마저 연기한 마당에 TV 토론 등의 이벤트를 추가 기획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초 TV토론 기획 및 이벤트 구상을 위해 모일 예정이었던 기획단은 이날로 잠정 잡혀있던 회의도 미뤘다.

기획단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획단은 당이 당분간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적어도 거리두기 4단계라도 완화되어야 이벤트 이벤트라도 구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부 기류는 일단 (경선을) 멈춰야 한다는 식"이라며 "그동안 후보들이 알아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개인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추미에 후보는 공백기 발생에 내심 반색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 기간을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시간이 늘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판이 될 것"이라며 "공백 기간 SNS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민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낮은 인지도로 예를 먹는 후보주자들은 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무제한 방송토론을 제안하며 "코로나 방역 문제로 선거가 연기되었지만, 후보들 사이에 정책 논쟁과 상호 검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 측 역시 "당이 나서서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방역 조치 강화로 방송 토론회가 어렵다면 유튜브 중계 토론회라도 하며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방역과 도정에 집중하는 한편 캠프 내부 정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지역 순회를 통해 밑바닥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송영길 "정부, 백신 클릭 경쟁 대처 너무 안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민들이 백신 확보를 위한 클릭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접종 시스템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접속자가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8-9월 백신 도입 물량만 7천만 회분인데 조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보기술(IT) 강국에 맞게 K방역의 명예를 지키려면 시스템 예약에 혼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 "일본에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괴한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 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8월에 돌아오면 그때 접종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너무 안이했다"면서 "빨리 비행기로 (백신을) 보내든지 유엔이나 미군 협력을 얻어 현지 접종을 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이준석, 첫 당대표 토론배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대표 토론배틀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방장관 해임 건의·국조' 쌍끌이 공세

국민의힘은 21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서울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카드까지 꺼내 들며 쌍끌이 공세를 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무능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경징도 즉각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불사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진석 의원은 SNS에서 "국익의 최전선을 지키는 그들에게 코로나 백신 맞히겠다고 신경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생명선을 지키는 영웅들을 국가가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음주운전 초범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1일 "음주운전 초·재범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판단 하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 운송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동잠금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설치되지 않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승남, 도매시장 운영 개선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가 설치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59만원~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